

4 과. 진리의 편에 굳게 서다. 2024 년 4 월 27 일

일. 진리의 대한 의문:

❖ 핍박의 시대.

- 핍박의 시간은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경고되었습니다.: "한 때와 두 때와 반 때" (단. 7:25; 12:7; 계. 12:14); 1,260 일 (계. 11:3; 12:6); 마흔 두 달 (계. 11:2; 13:5). 위의 세 시간들은 모두 하나의 기간 즉 1,260 일을 말합니다.
- 성경의 "하루는 일년"(겔 4:6; 민 14:34)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핍박은 1,260 년 (서기 538 에서 1798 년) 동안 계속되었습니다.
-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충성된 교회를 위한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(계 12:6, 14).
- 어려움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 피난처를 찾아 진리를 지켜냈습니다(시 46:1-3).

❖ 핍박 중에 굳게 섬.

- 정치적 권력을 갖게 된 로마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종교 법들을 지키라고 강요하기 시작했는데, 그 법들 중 대부분은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이었습니다.
-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에 반항하지 못하도록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것, 즉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았습니다.
-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파괴할 수는 없었습니다. 성경과 유다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웠던 충실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(유 1:3).

이. 진리를 지켜냄:

❖ 성경말씀을 전함: 왈덴스 사람들.

-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모두 바친 프랑스의 부유한 사업가 피터 왈도(Peter Waldo, 1140-1218)는 '리옹의 가난한 자들'(Poor of Lyon)로 알려진 "왈덴스(Waldenses)"를 창설했습니다.
- 왈덴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?
 - (1) 그들은 최초로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갖게 되었습니다(그 때는 라틴어, 그리스어, 히브리어 성경밖에 없었습니다).
 - (2) 성경은 금지된 책이었기 때문에 왈덴스 사람들은 로마교황을 섬기는 사람들을 피해 동굴에 숨어서 손으로 베껴 적었습니다.
 - (3) 왈덴스 사람들은 항상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적절한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었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격려를 받았습니다.
 - (4) 그들은 성경 진리를 수백 년 동안 보존했고 그들의 충실함과 헌신은 널리 알려졌습니다.
 - (5) 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의 마을사람들 모두가 이 성경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따랐습니다.
 - (6) 로마 교황청은 이 마을들의 대부분을 파괴했고 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.

❖ 개혁의 선구자: 존 위클리프.

- 존 위클리프(1324-1384)는 삶의 대부분을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데 바쳤습니다. 위클리프는 왜 이런 삶을 택했을까요?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변화시키셨고, 둘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.
-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위클리프는 국가의 공식 교회(로마교회)의 위협을 받았지만 그는 영국의 고위 관리들의 신임을 얻었고(로마)교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.
- (로마 교회는) 1428 년에 위클리프의 뼈를 무덤에서 파내어 불태웠고 그 재를 강에 뿌렸습니다. 그의 흩어진 재는 위클리프가 남긴 성경이 세계로 퍼져 나간 상징이 되었습니다.
- 존 위클리프가 밝힌 작은 진리의 빛은 보헤미아의 존 후스에게 전해졌고 이 빛은 계속 비춰지게 되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진리는 개혁의 새벽이 올 때까지 계속 비춰졌습니다. 그리고 새 날이 밝아왔습니다.

❖ 믿음으로 굳세어 짐: 존 허스와 그 외 선구자들.

- 존 위클리프 후에 새로운 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:
 - (1) 존 허스(1370-1415)

- (2) 제롬 (1360-1416)
- (3) 틴데일 (1494-1536)
- (4) 휴 라티머 (1490-1555)

— 그들은 어떻게 개혁을 시작하고 위협과 죽음을 직면할 용기를 얻었을까요?

- (1)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.
- (2) 예수님은 그들이 시련을 극복하고도 남을 능력을 주셨습니다
- (3)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같이 당한다는 사실을 기뻐했습니다
- (4)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세상을 향한 강력한 간증이었습니다
- (5)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넘어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
- (6) 그들에게 죽음은 이미 패배한 적이었습니다
- (7)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잡았습니다

— 존 허스는 투옥되었고 결국 화형을 당했습니다. 감옥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. "아!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셨고, 지금까지 얼마나 놀랍게 나를 붙들어 주셨는가!"

— 하나님의 약속이 옛날에 그분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,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.